經濟學과 젠더: 性別經濟學(gender economics) 定立을 위한 近代經濟學 批判 *

洪 太 喜**

논문초록 본 논문은 '성 인지적 관점(gender-aware)' 에서 경제학의 지식체계를 분석한다. 먼저 근대 경제학의 형성배경을 살피고 어떤 연관에서 근대 경제학의 '성 몰인지적 경향(gender-blindness)' 이 나타나는가를 규명한다. 다음으로 신고전파, 제도학파, 맑스 경제학 등의 이론체계와 'gender' 의 관계를 밝히면서 각 학파 내의 성별경제학(gender economics) 정립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성별경제학의 정립은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경제학 전반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미완의 분야인 성별 경제학의 정립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핵심 주제어: 성별경제학, 성별관계, 젠더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0, Z0, J7

* 심사해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한국 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KRF-2002-074-BM1001).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e-mail: hongtaehee@korea.com

Ⅰ. 문제의 제기

사례1: 갑자기 경제위기가 왔고 구조조정의 바람이 몰아쳤다. 그런데 사장은 무능한 영수 대신 유능한 순희를 해고했다.

사례2: 회사원 철수는 '유급으로' 집안일을 돌보아 주던 파출부 영희와 사랑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둘은 결혼을 했다. 그리고 영희는 전보다 더 열심히 '무급으로' 집안일을 했다. 그런데도 그 해 국내총생산이 전 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사례3: 같은 동네에 태어나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같이 나온 갑돌이와 갑순이는 같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그런데 갑순이의 월급은 갑돌이 월급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그러나 사회는 별 잡음 없이 돌아간다.

누가 위의 사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때 속 시원한 경제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오히려 기왕에 가졌던 경제학의 지식체계에 대한 믿음에 회의까지 생길 여지도 크다. 사실 합리적인 Homo Economicus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기본명제도 고용주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1로 간단히 기각되어 버리고 수학과 통계학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엄밀한 학문으로서 자리 잡았다는 경제학의 위상도 초등학생에게도 비판될 국내총생산 계산법을 보여주는 사례2로 무너진다. 아울러 투자한 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도 사례3으로 깨어진다.

이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경제학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목록을 뒤져보아도 '차별'이란 선언적인 대답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만 각 상황마다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가 어떤 작용을 했을 것이라 추측될 뿐이다. 이를 계기로 좀 더 자세히 경제학의 지식체계를 살펴보면 경제학 세계의 주인공인 Homo Economicus(경제적 인간)가 사실은 Vir Economicus(남성 경제인)임을 깨닫게 된다. Vir Economicus가 행위주체로 상정된 경제학은 자연스레 Macho economics(남성적인 경제학)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경제학이라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의 설명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경제학을 '반쪽짜리 사회과학'으로 규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

다. '반쪽짜리 사회과학'을 '온전한 지식체계'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 여기에 성별경제학(gender economics)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성(sex)과 그 성(sex)의 사회적 역할(gender) 및 gender의 차이에서 파생하는 '성별관계(gender-relations)'가 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다.[1] 이러한 시각을 '성 인지적(gender-aware)'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입각해서 경제현상을 파악하는 지식체계를 성별경제학(gender economics)이라고 명명한다.[2] 성별경제학이란 기존의 경제학이 분석대상, 분석모형,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주체 등에서 여성으로서의 Homo Economicus의 경험을 배제하고 사실 Vir Economicus를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성별경제학은 경제 현상 속에 성별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연구영역을 생산영역 뿐 아니라 재생산영역 그리고 재생산영역과 생산영역의 관계에까지 확장시킨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된 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3]

이렇듯 성별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을 Harding(1986, 1991)의 언어를 빌려서 '충분히 객관적이지 못한 나쁜 과학'으로 파악하며 차별이나 편견을 가진 지식체계로 규정한다.[4] 그러므로 성별경제학이란 자연히 '나쁜 경제학을 충분한 객관성을 가진 좋은 경제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경제학 내의 한 분과로 여성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이 아니라 '성 인지적' 관점으로 경제학 전체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성별경제학의 정립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진다. 무엇보다 위의 세 가지 사례

---

1) 여성주의자들이 고집스럽게 gender(성별, 성역할, 성차이, 사회적 성), sex(생물학적 성), sexuality(성성) 개념의 차이를 규정해도 개념상의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gender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성개념이며 양성을 두루 지칭하는 개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에 관한'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Ferber and Nelson(1997, p. 13), 김애실(2002), 차은영(1999).

2)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경제학적 접근을 영어로 economics of gender, gender economics, gender and economics 등으로 표현하고 이를 성별경제학, 성차별의 경제학, 성별과 경제학, 성경제학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여성경제학회의 합의에 따라 성별경제학(gender economics)이라고 명명한다.

3) 재생산이란 개념은 각 학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사실 재생산이란 생명의 재생산과 밀접한 개념으로 가사노동을 지칭하기도 하고 사회적 축적구조의 재생산이기도 한 애매한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의 재생산 노동을 지칭한다.

4) Harding은 사회과학연구에 나타나는 남성편향성의 원천으로 관습적인 모델의 사용, 가시적인 영역에만 연구 집중,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무관심, 성(sex)을 설명변수에서 제외, 여성관련 정보 도출 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다(Harding, 1986, pp. 111-120).

들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위 사례들이 불러일으키는 사회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 차이가 어떻게 여성과 남성들에게 다른 경제적 결과를 가져다주고 그 결과가 각 개인의 경제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의 배분과 분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성 편향적이지 않은 경제정책의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경제학은 아직 채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며 그 필요성에 비해 축적된 성과는 미미하고 그 발전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특히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Nelson, 1992, pp. 121-123). 사실 현재 성별경제학은 이렇듯 뚜렷한 문제의식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연구 영역과 대상에 대한 합의도, 용어사용의 약속도, 연구방법론에 대한 공감도 형성하지 못한 채 각자 파편화되어 선호하는 학문적 전통 속에서 절충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성별경제학은 경제학 내에서 여성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로나 겨우 인정받을 뿐 Vir Economicus를 양성을 두루 아우르는 Homo Economicus 로 전환시키는 작업 따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에 있다.[5]

성별경제학의 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시각정립이라고 사료된다. 즉 '어떤 학문적 유산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경제학의 지식체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첫째, 경제적 인간상에 대한, 둘째 경제학 방법론에 전반에 대한, 셋째, 기존 경제학 연구의 남성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성별경제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쓰여졌다. 이에 따라 성별경제학의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 근대경제학의 유산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재음미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일차적 과제이다(Grapard, 1996, p. 100이하). 이를 위해

---

5) gender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내의 구체적인 논의는 각 학파마다 다르게 진행되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성별경제학은 현재 여러 학풍 속에서 여성과 관련된 논의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Humphries(1995), Ferber and Nelson (1993), Folbre(1996), Hewitson(1999), Jacobsen(1998).

먼저 사회적으로 결정된 성을 가진 Homo Economicus가 어떤 연유에서 경제학의 세상에서 Vir Economicus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Ferber and Nelson, p. 107). 나아가 근대경제학의 성몰인지적 경향의 역사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각 경제학파가 gender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각 경제학파 내부의 대표적인 성인지적 작업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미완의 학문영역인 성별경제학의 필요성을 재조명하며 성별경제학의 정립을 위한 과제와 성별경제학에의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II. 근대경제학 내에서 Gender의 공간

1. 근대경제학의 성립배경과 Gender

인권이 구체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서구 근대시민사회의 대두는 학문의 발전과 각 분과과학의 전개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민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태동한 근대경제학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고무되어 그들의 분석 대상을 실험정신을 가지고 해부하기 시작했다. 고대와 중세를 걸쳐 오랜 시간 전체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파악되던 사회현상이 인권을 가진 개인들의 출현과 자연과학의 발달로 점점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자연과학이 분석대상을 동물과 식물로 나누듯이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도 분석대상을 여성과 남성, 자본가와 노동자,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수요와 공급 등으로 나누었다.[6] 나누어진 부분집합들 중 잘 보이는 것, 쉽게 셀 수 있는 것, 통념적으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먼저 분석을 시작했는데 여성이나 가사노동보다는 단연 남성이나 시장노동이 채택되었다. 이렇듯 전체를 나누어 분류하고 분류된 것의 모형을 떠서 셈을 하고 셈해진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 다시 전체를 추정하는 작업들이 근대경제학의 주된 일거리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학문적 관심은 시장에

6) 이런 의미에서 근대인들은 누구나 데카르트의 추종자이다(Nelson, 1997). 데카르트의 원래 의도는 신에게서 탈출한 근대인을 'Cogito ergo sum'으로 사유하는 신으로 등극시키는데 있었고 이는 인간존재의 자기 확인이 있었다. 그러나 신이 되기에는 너무 불안했던 근대인들은 오히려 데카르트의 오류에 속하는 이원론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신을 다시 숭배해 간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근대경제학은 대륙의 합리론보다 영국의 경험론의 영향을 더 받아들여 분리적 자아, 자연과학적인 학문방법론을 채택하면서 급격히 속류화 되어간다.

쏠렸다. 아울러 셈하기 어렵거나 셈할 여유가 없던 부엌은 자연히 등한시하게 되었다(Hong, 2002; Zilsel, 1976).

즉 근대경제학은 그들의 주요업무를 '시장적 행위'의 해명에 두었으며 '비 시장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간과하면서 분석대상의 선정의 성편향성을 나타냈다(Nelson, 1995). 이에 여성의 주요활동영역인 가계생산과 가사노동 및 가계내부의 분배 문제 등은 자연히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계내부의 경제생활이 경제현상의 중요한 측면이었다. 출산되어 양육과 보살핌을 받고 가족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인간상이란 당연 경제 분석의 기저에 있었다. 그러나 근대경제학에 와서 오직 계산(ratio) 능력만 구비한 Homo Economicus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시장에 나타난다. 이 인간상이 근대인의 사유세계를 점령하였고 점차 사고의 습관(habit of thought)이 되고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어 현재의 일상생활로 재생되고 있다. 이 지식체계와 생활세계 속에서 여성 및 여성의 주 활동영역은 자연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생산과 재생산관계, 재생산 관계 자체 등의 영역들은 체계적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7]

다시 말해 근대경제학이 셀 수 없었거나 셀 필요를 덜 느꼈던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이었다. 사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돌풍 속에서 참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인간은 여전히 남성이었으며 그들의 활동장소는 시청이거나 시장이었다.[8] 자연히 참정할 수 없거나 시장으로 갈 수 없는 여성들은 베일 뒤에 가려졌다(Scott and Tilly, 1975; Maier, 1993).

이러한 학문전통은 '남성중심주의는 순리이며 옳다'는 신념과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란 두 축을 지지대로 더욱 발전해 갔고 그 후 약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실 속에서 끝임 없이 재생산되어지고 있다(Harding, 1986, p. 16). 이에

---

7) 이 과정은 국가의 용인이나 묵인 또는 국가의 의도적인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재생산 개념에 대해서는 권현정(2001).

8) 서구 여성들은 19세기 초까지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참정권 및 중등교육 피교육권 등이 없었다.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과 더불어 누리게 된 시민계급의 권리란 사실 남성들의 권리였고 여기에서 사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지배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대의 주된 사상적 배경인 자유주의 사상은 국가의 간섭의 최소화나 신분에 기초한 제약의 철폐 등을 기치로 내세우며 이 모든 것이 마치 인간일반에 적용되는 듯이 선전하나 실제로 여성에게 허용된 영역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태동되고 발전된 경제학이 gender 문제를 은폐시킨 것은 당연한 전개과정이다.

대한 회의와 도전은 늘 있어왔지만 20년 전쯤에 와서야 gender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시작되었다.

2. 근대경제학의 '성 몰 인지적'(gender-blindness)인 연구방법론

근대경제학의 인간상은 합리적이고 자치적이며 자기이익 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근대적 경제인은 라이프니츠의 단자(monad)처럼 '창 없는 실체'로서 주어진 조건하에 효율적인 경제행위를 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절대자에 예속된 인간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던 근대인들은 존재에 대한 질문을 신에게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서 찾았고 가시적이며 계량화될 수 있는 것들만 믿기로 했다. 이러한 세계관은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삶의 양식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실증주의는 당연히 학문세계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과학인 경제학의 진리성은 아무리 실증을 한다고 해도 가설로서의 진리성밖에 확보하지 못하며 그 본질은 사람들의 신념체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근대경제학은 이 신념체계를 수학과 통계학의 도움으로 정교하게 표현할 줄 알게 되었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념체계는 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모형은 일단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현실로 자리 잡는다. 즉 경제학자의 머리 속에 만들진 모형은 현실을 해석하는 잣대로 다시 사용되었고 현상은 이 잣대에 맞게 재정리되었다.

신념체계를 '신뢰받을 수 있는 지식체계'로 정립하는 전 과정, 즉 주제를 선택하고 가설을 세우는 단계, 가설을 다시 검증하는 단계,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 이 모든 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덕목은 전형적인 남성적 gender를 대변하는 '중립적', '객관적', '보편적'이라는 덕목이었다. 반면에 여성적 gender는 '편파적', '주관적', '특수적'인 경우로 치부되어 배제되어 왔다(Nelson, 1992, pp. 110-115; 차은영, 1999). 이러한 편향성은 반복을 통해 습관으로 고착되었고 고착된 습관은 어느덧 문화로 정착되었다. 결국 '객관적이니 경제학적이다'가 '남성적이니 경제학적이다'로 정착되며 그 문화의 코드는 '경제학의 세계는 남성적이다'로 설정된다. 여기에 양성을 두루 아우르는 gender를 해석할 공간은 물론 없게 된다(Schiebinger, 1989; Stanley and Wise, 1983; Nelson, 1992).[9]

근대경제학의 '성 몰 인지적'인 경향은 여성연구자가 경제학 형성과 발전에 소외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한다.[10] 사실 마녀사냥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던 근대의 서양학문세계는 여성 학자에게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인색했다. 이에 남성 연구자들의 문제인식이란 자연히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었고 연구는 남성적인 영역이나 남성적이라는 방법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 사실 문제는 학문방법론의 남성편향성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 방법론에 따라 학문적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에 있으며 그 근본원인은 연구자의 지나친 성비불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Dimand, 1995; Stanley and Wise, 1983; Ferber and Nelson, 1997, pp. 3-6).

연구결과의 주변화도 경제학의 '성 몰 인지적'인 경향에 영향을 미쳤다. 설령 gender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았으며 연구주체가 여성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경향을 띠었다.[11]

아울러 경제학이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 채 발전된 이유에는 경제학의 타학문 배타성도 작용하였다. 경제학은 여타 다른 학문분야와 종교, 도덕, 철학 등의 유산을 물려받아 탄생하였고 이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근대경제학은 여타 학문에 비해 폐쇄적이고 경직적이며 이를 오히려 우월성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 나타냈다. 자연히 그간 진행된 gender에 관한 타학문의 선행연구들의 도입에도 상대적으로 인색했다.[12]

이렇듯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렵게 재정립한 근대세계가 인간과 인간사이의 계급적 고리까지 끊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경제학의 남성편향성의 근본원인도 여기에 있다. gender의 차이는 단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 계급과 신분의 차이이다. 이 신분의 차이는 차별을 용인하게 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의 남성편향성은 단지 일상생활에서 뿐 아니라 학문과

---

9) Schiebinger(1989)는 근대학문의 가치중립성에 대해 회의하면서 지식체계에서의 여성소외를 칸트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10) 한국사례에 대한 연구는 차은영(1999).

11) Dimand는 여성경제학자의 역사적 재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성경제학자 인명사전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Ferber and Nelson, p. 6; Dimand, pp. 12-16).

12) 사회학이나 정치학의 경우 여성주의적 시각을 창조하거나 바로 흡수하여 논의를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여성주의가 경제학에 도달하는 데는 20년이 걸렸다. 이에 대해 박미해(1993), 여성사회학연구회(1985), 차은영(1999).

학문 방법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각 경제학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III. 경제학파의 Gender 읽기

1. 신고전파와 Gender

신고전파 경제학은 수학과 통계학의 발전에 힘입어 나름의 인간관과 독자적인 가치론(한계생산력설), 가치측정기준(효율성), 가치결정 메커니즘을 정립시키면서 과학으로서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가치 사이의 외줄 타기를 경제행위의 원리로 파악하였고 Homo Economicus 사이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시장을 통해 조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내세웠다. 그들은 원자론적 사회관에 입각해서 사회를 개별 Homo Economicus의 집합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가계도 하나의 독립된 경제주체로 취급하면서 소비주체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계내부의 역학관계는 간과되었고 자연히 재생산 영역과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실 근대경제학의 장자인 신고전파로서는 경제학의 성편향적 유산을 물려받지 않을 수 없었으니 England의 주장처럼 이론구조 심층부에 남성적인 편견을 내재하게 되었다.[13] 이러한 구도가 신고전파의 지배적인 시각이 됨으로써 가계는 가치생산영역에서 배제되고 단지 소비주체로서만 파악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들면서 여권의 급격한 신장은 주류 경제학에도 변화를 요구했고 신고전파도 일정한 해명방식을 제시하여야했다. 이 중 재생산영역의 가치평가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를 계기로 Becker(1965)와 Gronau(1973, 1977)에 의해서 정초된 '신가정경제학'은 대표적인 작업이다.[14] Becker는 가계내부에서도 시장에서처럼 교환하고 분배하는 상황이 전개됨을 주시하고 결혼, 이혼, 성별분업과 가계내부의 자원배분을 경제적 효용이라는 잣대로 재해석했다. 물론 효율적인 성역할

---

13) England(1989; Ferber and Nelson, p. 49, p. 55-68)는 합리적선택이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고전파의 기본가정이란 개인효용비교 불가능,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불변하는 기호, 경제주체의 이기성, 가족구성원 사이의 이타주의이나 이를 교정한 모형이 나와야 여성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논쟁으로는 Mansbridge(1990).

14) Becker가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에 대한 부부 간의 의사결정을 주로 분석했다면 Gronau는 시장노동, 가사노동, 여가사이의 시간배분을 살펴보았다.

분담은 생산성의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Grapard, pp. 108-109; 차은영 · 홍태희, pp. 28-32). 예를 들어 결혼은 구성원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성립되고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내부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15] 당연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승진의 기회가 보장된 남성노동이 시장노동에 특화되고 여성의 상대적 비교우위는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에 있다고 주장한다(Becker, 1981a, pp. 21). 그러나 '신가정경제학'은 전통적인 여성영역에도 주류 경제학이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의는 가지고 있지만 '성별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접근함에 따라 오히려 성별분업을 강화시키고 여성의 저임금을 정당화시킬 여지를 가지고 있다(Hewitson, 1999; Ott, 1993; McElroy and Horney, 1981; Chiappori1, 1988; 이인실, 1997).

'신가정경제학'의 예로 살펴본 것처럼 신고전파의 gender 읽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논리의 충돌이다. 신고전파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이론을 전개하는데 가계의 경우 하나의 단일주체로 해석한다. 이는 그들의 기본논리에 상충된다. 둘째, 신고전파의 '성 몰 인지적'인 관점이다. 사회적 관계로서의 gender의 차이로 인한 '성별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비교우위론의 제시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입각해 있고 gender를 해석할 어떤 여지도 없다. 신고전파의 해석을 따르자면 여성노동차별은 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다(Folbre, 1984; Beblo and Soete, 1997). 셋째, 인간이해에 대한 편의성이다. Becker(1981b)의 경우 확인되듯이 시장행위에서는 개인간의 효용비교는 불가능하고 개인은 이기적이라고 가정하나 집에서는 이타주의적 가부장을 설정한다(Hewitson, 1999). 넷째, 자유에 관한 기계적인 이해에 따른 모형설정이다. 신고전학파는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는 모형을 상정한다. 그러므로 자연히 의존, 종속, 억압, 착취 등 주체 사이의 역학관계가 내포된 상황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Maier, 1993; Grapard, 1996). 하지만 gender의 문제는 주체 사이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야할 전형적인 경우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신고전파 이론체계 속에 합의된 생물학적인 성 개

15) '가정에서의 이타주의'와 '시장에서의 이기주의'란 가정은 원래 Smith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Becker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졌다고 할 수 있다. Becker는 이타적인 가부장과 가족공동선호모형을 상정했다. 그러나 집밖에서는 이기적인 의사결정자인 Homo Economicus가 집안에서는 이타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은 지나치게 편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Becker, 1981b; 김애실, 1997; 이인실, 1997). 이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Sen(1984).

념이다. 신고전파는 일반적으로 성을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조명함으로써 성의 사회적인 관계를 매몰시킨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의 교환행위를 강조할 뿐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고 분석하며 이들 간의 역학관계는 가능한 배제한다. 그러므로 신고전파가 경제학 연구대상에 여성관련 부분을 추가했다고 해도 실제 부딪히는 gender 문제에 대한 바른 설명이나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Woolley, 1993; Biesecker and Wolf). 사실 신고전파의 기본시각에는 여성과 관련된 영역, 특히 재생산영역은 '비생산적'이라는 편견이 함의되어 있다(Grapard, 1996).

2. 제도학파와 Gender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소자본이 대자본으로 급격하게 변해가던 시절 경제학은 이러한 변화를 해명하고 관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 해답을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마샬의 『경제학의 원리』보다 스펜서의 『종합철학체계』나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찾은 사람들이 제도학파이다. 제도학파는 배분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신고전파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즉 제도와 권력이라고 파악했다. 특히 구제도학파는 신고전파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부정하였으며 전체론적 관점에서 사회변화를 주시하였다. 그러나 제도학파는 맑스의 『자본론』과도 일정거리를 둔다. 왜냐하면 대자본의 형성과정이 착취와 수탈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기대했던 계급투쟁의 징후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를 일일이 조직하기엔 그들의 터전인 미국은 너무 넓었다. 아울러 장기에 걸친 변화, 점진적인 진보, 진화에의 믿음 등으로 눈앞에 펼쳐진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일단 정당화 할 수 있었다(O'Haru, 2000).

제도학파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아내가 시장노동의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 신고전파의 논지에 따르면 남편이 가사노동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비교우위와 상관없이 성별분업이 이루어진다. 게다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행복한 가정을 가부장적 착취구조로 설명하는 맑스주의도 지나치게 음울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이에 제도학파는 한 사회 속에 용인된 남성우위의 문화적, 제도적 여건을 차별된 경제적인 결과의 근본원인으로 파악하고 경제적 교환관계로만

해석하려던 기존의 입장들을 반박하였다.[16]

특히 구제도학파는 단지 경제적 관계 뿐 아니라 관습, 규범, 가치, 전통으로 형성된 한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경제학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규범, 역사적인 배경, 제도 등은 정태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진화, 변화해가며 동태적인 환경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제도학파는 '성별관계'도 사회·문화적인 규범과 역사적인 배경 하에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전파와 맑스 경제학을 동시에 비판한다(Gordon and Adams, 1989; Hodgson, 1993, 1994).

이러한 제도학파의 관점은 '성별관계'의 파악과 성별경제학의 형성에 커다란 계기를 제공하였다. 사실 제도학파의 전통 속에는 사회·문화적 여건 속에서 결정되는 gender의 차이가 경제적 관계(자원의 배분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즉, 한 사회의 상부 System인 제도는 그 사회에 통용되는 '성별관계'를 정립시키고 이렇게 성립된 질서는 하부 System인 가계의 작동원리로 작용한다(Petersen and Brown, 1994: Beneria, 1995, pp. 1839이하; Wolf, 1996, pp. 42이하; 차은영·홍태희, pp. 35-36).

그러나 이러한 제도학파의 관점(구제도학파)은 아쉽게도 베블렌 이후에는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다(Jenings, 1997; Greenwood, 1984). 사실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한 경제학의 정립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신고전파의 방법론에서 너무 멀리 나가는 것도 위험하게 느껴졌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제도에 대한 신고전파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풍토가 나타났는데 이를 신제도학파라고 한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Homo Economicus를 Homo Reciprocan(상호적 인간)으로 개명한 후 신고전파로 복귀한다(Hodgson, 1993). Homo Economicus(자기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인간)는 'Homo Reciprocan(주위의 눈치를 보는 인간)'으로 개명되어 그려졌지만 다시 부각된 속성은 계산능력이었다.

신제도학파는 경제적 인간이 서로 간의 관계에 질서를 세우려고 늘 특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제도의 성립배경은 거래비용의 절약이다. 즉 신제도학파는 거래비용절감을 위해 '성별관계'가 정해지고 성별분업이 결정된다고 파악했다

16) Petersen and Brown(1994), Jennings(1993), 차은영·홍태희(2000). 특히 Petersen and Brown(1994)은 제도주의적 관점과 여성주의의 결합을 잘 보여준다.

(Pollak, 1985, pp. 150이하; Kabeer, 1994). Becker의 '신가정경제학'은 그 이론적 기반이 되었으며 분석방법을 더욱 현대화하면서 신고전파와 제도주의의 연결점을 찾는다.

1980년대 중반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제도주의적 게임이론'은 제도학파의 대표적인 gender 읽기 작업이다. 제도학파는 게임이론의 분석틀 속에 '성별관계'와 성별분업 문제를 내부화시키면서 gender 문제에 접근한다(Sen, 1990a, 1990b; Agarwal, 1997; Kabeer, 1994; Seiz, 1995; Ott, 1992). 제도주의적 게임이론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규범이나 전통은 가족외부의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지며 이는 가족내부 협상 시에 게임의 법칙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의 법칙 또한 경제적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응전략에 따라 진화되어진다는 것이다. 즉 '성별관계'도 사회·문화적 여건이 허락하고 제시하는 게임의 결과로 결정되는데 양성은 서로 싸우기도 협력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성별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Agarwal, 1997; Folbre, 1994, 1997; 차은영·홍태희, pp. 35-37). '협조적 갈등(cooperative conflicts)'개념은 그들이 '성별관계'를 파악하는 기본시각이 되었다.

제도학파가 그간 외생적으로만 주어졌던 제도나 관습을 경제 분석 내부로 도입시키면서 gender 문제를 근본적으로 설명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Jennings, 1993). 아울러 게임이론의 방법론의 도입은 탁월한 분석도구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여성도 드디어 게임의 경기자로 즉 인권을 가진 한 개인으로 구체적으로 경제현상에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조적 갈등'이란 개념으로 성별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분석 내부에 정착시킨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제도학파의 학풍을 성별경제학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비 체계성이다. 방법론적으로 산만하고 이론체계가 집대성되어 있지 못하다. 전체론적 관점과 개별론적 관점의 혼용은 실제 제도학파 자체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고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 간의 간격 뿐 아니라 신제도학파 내부의 분파간의 갈등도 크다. 둘째, 제도학파적 접근은 장기적인 분석에는 비교적 적합하나 단기적인 문제의 분석에는 부적합할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gender의 문제는 장·단기분석이 공히 필요한 영역이다. 셋째, 제도학파는 사회변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현재의 불평등한 '성별관계'나 사회가치체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뿐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한다. 성별경제학은 단지 문제의 제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적 학문체계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제도학파의 논지로만으로 성별경제학의 방법론적 체계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3. 맑스 경제학과 Gender

맑스 경제학은 '창 없는 단자'도 서로 소통하며, 이 소통에도 일정한 법칙이 작용함을 감지하고 시장으로 나간 근대인들 사이의 관계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맑스 경제학이 만난 근대인은 비록 황제권과 교회권력으로부터 어렵게 벗어나긴 했어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자가 아니었다. 맑스 경제학은 여전히 불평등하고 부자유스러운 존재인 대다수의 근대인의 상태, 즉 노동자들의 상황을 주목하였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근대인의 경제적 환경, 즉 자본주의를 분석했다.

그러나 맑스 경제학은 시장으로 나온 근대인이 어떻게 착취되는가에 맞추어져 있을 뿐 근대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까지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 그들은 바삐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따져야 했고 생산관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실증'하려는 욕심에 재생산 영역을 뚝 잘라내어 버렸다(Folbre, p. 129; Kuhn and Wolpe, 1978). 물론 Bebel이나 Engels가 그랬듯이 여성문제나 성차별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성적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은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재생산영역은 자본주의적 가치창조 영역에서 배제되었다(권현정, 2002, pp. 11-18). 이런 연유로 맑스 경제학 또한 신고전파와 마찬가지로 '성 몰 인지적'인 분야로 치부된다.

그럼에도 맑스주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역사적,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분석틀이란 gender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그리 많지 않은 도구 중의 하나이다(Hartstock, 1983). 이러한 긍정적인 이론적 유산을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생산영역 자체와 재생산영역과 생산영역 사이의 관계를 집중 연구하여 기존의 맑스주의를 확장, 발전시킨 것이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맑스주의 페미니즘이다.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맑스 경제학의 대표적인 gender 읽기로서 '신가정경제학'의 경우처럼 여성운동과 여권신장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초되어졌으며 '신가정경제학'과의 경쟁 속에서 발전해갔다.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가정 내의 전제군주인 가부장의 존재를 주목하였다(차은

영 · 홍태희, pp. 32-35). 즉 가부장 제도를 자본주의와 같은 모순구조로 규정하며 자본주의와 가부장 제도를 여성의 이중착취구도로 설정했다.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가계내부의 여성무급노동을 기반으로 남성시장노동의 가격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자본가의 잉여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체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착취구조이고 여성노동의 경우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 모두에서 이중착취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체제 속에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모순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라는 모순구조도 존재한다고 규정한다.[17] 이에 따라 맑스의 생산개념을 재생산노동, 가사노동에도 확대 적용하며 '성별관계'도 생산관계 속으로 도입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둘러싼 논의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이르러 '가사노동 가치논쟁'으로 이어졌다.[18]

이런 작업을 통해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구조는 보다 분명해지고 여성문제의 해결점도 명확해 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과연 맑스주의와 여성주의[19]의 결혼이 가능한 결혼인지, 가능하다면 행복한 결혼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르게 되었다.[20] 왜냐하면 여성주의와 맑스주의는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각을 공유하지만 맑스주의가 역사의 주체를 노동자에서 찾는다면 여성주의는 그것을 여성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첨예한 입장대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Beneria, 1995, pp. 1841이하; Folbre, 1986; Hump-

---

17) Folbre (1993, pp. 102), Hartsock (1983), Biesecker and Wolf (1995, pp. 132이하), Hartman (1981), Beneria, (1995, pp. 1841이하).

18) 60년대 말에서 70년대는 '가사노동가치논쟁'이 있었고 80년대는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이의 논쟁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도 가사노동논쟁이 전개되었다. '가사노동가치논쟁'의 쟁점들을 살펴보면 여성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논의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 · 공간의 차이에 따라 주요 논제의 차이를 보이며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쟁점은 맑스주의와 여성주의, 계급과 성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둘러싼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극단주의 페미니즘 사이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Seccombe (1973), Sargent (1978), Barrett (1995), Hartmann (1989), Armstrong and Armstrong (1983), Eisenstein (1979), Young (1978), 권현정 (2001, pp. 3-5). 특히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는 Sargent (1981), Hartmann (1989).

19) 본 논문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정의나 내부의 다양한 분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Kourany, Sterba and Tong (1992), Mahowald (1994).

20) Hartmann (1981)이 불행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관계가 불평등하며 여성주의가 주체성을 상실하고 맑스주의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비해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이 결혼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결혼이라며 이러한 연대로 애당초 목표인 유물론적 해방과는 다르게 관념론으로 빠지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hries and Rubery, 1994; Biesecker and Wolf, 1995, pp. 131이하).[21]

사실 정통 맑스주의로서는 노동과 자본의 모순관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논리를 여성문제에까지 확장시키는 데에는 부담을 갖고 있다. 게다가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맑스의 이론적 계승을 유지하면서 gender문제를 충분히 함의하는 패러다임을 정립할 역량도 채 갖추지 못했다. 더구나 맑스주의 페미니즘 내부의 분파간의 갈등은 이론적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다.[22] 게다가 현실사회주의 내의 여성문제는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었다. 생산수단의 공유로도 여성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성별관계'를 기초로 한 생산양식체제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지 못했으며 정통 맑스주의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적당히 수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노력으로 가계가 단지 소비주체가 아니라 생산주체 임이 강조되긴 했지만 '성별관계'와 재생산영역을 생산관계 속에 완전히 정착시키지는 못한 듯하다.

gender와 관계해서 맑스 경제학의 일반적인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력의 한계이다. 기본적으로 맑스 경제학은 자본주의 생산영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gender의 문제는 재생산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억압받는 여성에 대한 해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넘어서는 문제이나 맑스 경제학의 분석은 자본주의에 맞추어져 있다. 둘째, 맑스 경제학의 변증법적 연구방법이다. 맑스 경제학의 출발점은 계급이다. 맑스주의의 논리를 적용시키려면 계급을 중심으로 정과 반이 대치되는 구도가 일단 확인되어야 하는데 '성별관계' 사이의 정과 반은 분명하지 않다. 여성을 단일 계급으로 놓고 남성과 대치시키기에는 여성 내부의 계급적 다양성을 간과하기는 어렵다.[23] 셋째, 연구형성과 발전과정 및 연구방법론의 남성편향성이

---

21) 역사의 주체를 여성으로 파악했다는 것은 여성을 역사변혁의 중심세력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적 뿌리는 Engels(1884)의 『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에 있으나, 여성주의와 맑스주의 사이에서 어느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러 분파로 나누어진다(Tuttle, 1986). 그 한 분파인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성별과 계급이 여성문제에 대한 설명에 거의 동등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계급이 여성 문제를 보다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억압이 개인적 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자본주의와 연관된 정치 경제적 구조의 산물로 이해했다. 그러나 각 진영 사이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Beneria(1995), Folbre(1986, 1993), Humphries and Rubery(1994), Hartmann(1981), Biesecker and Wolf(1995).

다. 맑스 경제학도 신고전파의 경우처럼 남성 주도로 정립되었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다. 물론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도 근대 학문정신에 입각해 남성편향 되어 있다.

사회과학이 인간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맑스 경제학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비해 더 충실한 사회과학체계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맑스 경제학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역사적,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별경제학이 맑스 경제학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여성주의와 맑스주의가 둘 다 실천과 분리될 수 없는 지식체계라는 점에 있다. 성별경제학은 단순히 경제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대안적 지식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맑스 경제학 또한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그 불평등한 결과를 주목하고 있고 이 불평등의 해소를 모색하고 있다. 이 면에서 두 경제학의 체계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맑스 경제학의 관점에서 gender 문제에 접근하려면 성별관계를 생산양식 속에 구체적으로 정립시키는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산관계로서의 성별관계를 정립시키는 작업은 적어도 70년대 이후 제 2차 여성운동기에는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 결과 오히려 경제적 결정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구조주의적인 접근을 시도되었고 gender문제를 자본주의적 착취나 억압의 차원에서만 설명되기보다는 모든 사회조직과 사회관계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서열적 권력관계의 산물로서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게 된다(Althusser, 1972; Habermas, 1981).

현재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지난 세기에 완성하지 못한 성별관계를 생산양식 속에 정립시키는 작업을 보다 심도 있게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성별경제학이 사회적 제 관계 속에서 양성 사이의 경제적 긴장을 비판적으로 담론화시킬 의무를 가진 학문체계라면 맑스 경제학은 사회의 제 관계 속에서 계급 간의 경제적 긴장을 담론화시키는 학문체계라고 할 수 있다. 두 영역 사이의 결합의 성공여부는 성별관

---

23) 이는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지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여성성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나타났으며 현재 여성주의의 정립에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Harding, 1984). 즉 여성내부의 계급적 다양성이란 모든 여성이 여성이란 차원에서 동일하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예를 들어 가난하고 힘없는 흑인여성과 부유하고 힘 있는 백인 여성의 계급은 동일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에 비해 오히려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다(Hook, 2002; Maynard, 1994).

계란 개념을 이 긴장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상 기존의 경제학파의 gender 수용 가능성과 한계를 개괄했다. 학파를 불문하고 20세기 후반부에 와서 gender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기존 관점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각 학파별로 사례들을 통해 소개했다. 또한 각 학파의 논지에 나타난 성별경제학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제시했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성별경제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학파의 관점을 서둘러 수용하기 보다는 먼저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경제학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보다 충실히 수행한다.

IV. 성별경제학의 정립을 위한 과제

1. 성별경제학의 시각과 성별관계

성별경제학의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별과 성별관계라는 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유한한 가치와 무한한 욕망사이의 경제적 결정에 성별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특히 성별관계 개념을 충분히 발전시켜야 한다. 성별관계란 여성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비판사회학 등에서 핵심적 용어로 사용되는 개념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나 이론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성별관계에 대한 분명한 개념설정 없이는 여성학은 물론이고 각 분과과학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 할 기반 자체가 없는 것이다(Becker-Schmidt and Knapp, 1995).

성별관계란 개별적이거나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치생산을 위한 사회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성별관계를 경제적 가치생산과는 별개로 파악하고 사회적, 문화적 또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Haug, 2002; McDonough, Roisin, and Harrison, 1978). 다시 말해 성별경제학이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각은 성별관계가 노사관계처럼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관계이고 사회적인 관계라는 점이다. 즉 이를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자연적인 관계로 이해한다면 굳이 성별경제학이란 분야를 정립시킬 필요가 없다.[24]

또한 gender 개념을 통해 경제학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성별경제학이라면 그 시작은 gender가 어떤 경우에도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gens'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성(Sex)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계급이 다르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성별관계가 남녀로 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생물학적인 차이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의 사회적 의미는 각 경제체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생산관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성별관계를 자연적인 관계로만 파악하는 시각을 교정한다면 각 사회마다 성별관계가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현상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 급격히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변화, 특히 양성간의 관계를 보다 잘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은 자연적이라고 하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성은 자연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에로의 교정은 성별문제를 둘러싼 문제해결의 첫 번째 걸음이고 성별경제학이 양성을 두루 아우르는 경제학으로 정립될 가능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별경제학의 정립이란 성별관계란 개념을 충분히 발전시킨 이후에 이를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일점과 같이 활용하여 경제학 전반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성별경제학의 당면과제

미완의 분야인 성별경제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경제학 전반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점의 정립이 필요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성별경제학적 접근의 당면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겠다. 첫째, 연구 영역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연구의 비 체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김애실, 2002). 현재 직면하고 있는 비체계성에는 여성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대경제학의 문제점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현재 '여성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선행 작업 없이 체계적인 성별경제학의 정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학문작업을 위해서는 용어사용의 혼란도 극복되어야 한다(Cagatay et al.,

24) 만약 이를 자연적 관계로 접근한다면 차이란 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 되고 차별이란 경제학적 분석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995, pp. 1828). 둘째, '성 인지적'관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이론모형도 개발하며 이를 근거로 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도 실시하고 그 영향분석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성별관계를 보다 유용한 카테고리로 정립시켜야 한다. 셋째, 성별경제학의 연구자와 연구의 양적·질적 수준을 증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의 성별경제학에 대한 교육 및 전문 학술지의 발간과 학술모임 등의 성립이 필요하다. 넷째, 타 학문 분야나 타 경제학 분야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성별경제학은 특히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성별경제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타 학문분야와의 연대 및 타 대안 경제학 체계와의 연대도 필요하다(Woolly, 1993). 특히 성별정치학이나 법여성학 또는 생태경제학이나 차별경제학의 발전은 성별경제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분석방법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 즉 계량적 분석 뿐 아니라 직관과 추론도 사용하는 등 문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McCloskey 1999; Ferber and Nelson, pp. 93). 논리체계의 정합성을 일정 정도 양보하더라도 gender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접근방법이 있다면 채택하여야 한다. 여섯째, 현실적인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정립 만을 위한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곱째, gender 차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종차별적 속성도 주목하여야 한다. 사실 성차별주의(sexism)와 인종주의(racism)가 뿌리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Homo Economicus가 단지 Vir Economicus가 아니라 'White Vir Economicus'이라면 대안경제학으로서의 성별경제학은 먼저 인종적으로 해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Maynard, 1994).[25]

V. 맺음말

이상 우리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경제학을 재해석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경제학 속에서의 gender를 읽어보았다. 먼저 근대 경제학의 형성과 발전과정 속에 등장하는 Homo Economicus가 Vir Economicus로 상정되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각 경제학파의 gender 도입의 경험을 신고전파, 제도학파, 맑스 경제학의 예로 살

25) 가난한 흑인여성과 부유한 백인 여성의 gender의 차이성과 유사성에 대한 논쟁과의 관련에서 여성성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백인우월주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대해서 Hooks(2000).

펴보았다.

주류경제학의 법통을 이어가고 있는 신고전파는 기본적으로 '성 몰 인지적'인 관점에서 정립되었기 때문에 신고전파의 방법으로 '성별관계'의 경제적 영향을 해명하는 것에는 일정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제도학파는 '성별관계'와 이에 따른 경제적 잉여의 행방을 제도나 권력관계 속에서 파악할 시각은 제공하나 성별경제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파 내부의 체계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제도학파의 경우 신고전파의 방법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 몰 인지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올 위험조차 있다고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맑스 경제학의 분석틀은 '성별관계'를 사회 구조 속의 작용단위로 파악할 계기는 제공한다. 그러나 생산영역 속에 성별관계를 구체적으로 정착시키지는 못하고 있어 그 기본 틀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성별경제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 학파의 틀 속에 gender 문제를 적용하는 작업보다 성인지적 시각으로 경제학 전체를 재해석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성별경제학의 성공적인 정립여부는 성별관계를 경제현상을 둘러싼 양성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내느냐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별경제학의 접근방법은 철저히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성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론적 사회관이나 방법론적 개인주의 같은 신고전파적 접근은 일단 유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성별경제학이 '관계의 학'이라면 서양학문체계에서 쉽게 찾지 못하는 성별경제학 정립의 실마리를 동양적 전통에서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사실 서양사상은 기본적으로 이것저것에 대한 단절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성별관계'는 단절된 지식체계 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26]. 그러나 이것저것을 상호 보완시키는 것, 남성과 여성을 보완시키는 것의 가능성은 동양사상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서양식 접근이 근본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을 대립적인 관계에 입각해 있는데 비해 동양사상에는 이중적으로 있으나 상호보완을 이루는 남녀관계나 상호보완을

26) 동·서양사상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둘 사이에는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서양근대학문 세계에 등장한 합리주의와 실증주의는 분명 각 대상에 대한 분석적 지식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여전히 동양의 지성계는 유학의 '천·지·인의 합일'과 도교 '무위자연'사상 등에 머무르며 조화를 강조하며 종합적 지식을 파악하려는데 주력했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진위평, 1999; Zilsel, 1976).

누리는 면에서 서로를 살려 나가는 개념이 설정되어 있다. 음과 양이 이중적으로 있으면서 상호보완성을 이루는 주역의 음양 개념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김혜숙, 1999; 김세서리아, 1999).

율려 개념도 성별경제학의 좋은 출발점이다. 율려란 음양을 조절한다는 뜻이며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를 지칭하는 개념이다.[27] 사실 율려에 맞게 산다는 것은 동양인들의 오랜 이상이었다. 율려에 맞게 문화를 만들고 경제를 만들고 이에 기초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서 조화로운 질서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 이에 성별경제학을 '율려 경제학'으로 부르면서 서양학문체계에서 부터의 극복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동양적 조화는 복종과 인내를 의미하는 개념만이 아니다. 조화란 흔히 합의, 평화 등으로만 인식되나 실제 조화란 갈등하고 있는 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화롭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이 부각되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1. 권현정,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과천연구실 세미나 17, 공감, 2002.
2. 권현정, "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사회적 재생산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3. 김세서리아, "한국의 유교문화와 여성-우리 안에서 여성 읽기-," 『철학과 현실』, 제42호, 1999, pp. 153-166.
4. 김애실, "페미니스트 이론과 경제학," 한국경제여성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1997.
5. 김애실, "Gender Economics 강의안," 2002, www.cafe.daum.net/hufsecon.
6. 김혜숙, "음양존재론과 여성주의 인식론적 함축," 『한국여성학』, 제15권 제2호, 1999, pp. 5-28.
7. 박미해, 『사회학자들이 본 여성과 남성』, 한울아카데미, 1993.
8. 여성사회학연구회(편), 『여성사회학』, 한울, 1985.
9. 이인실, "신고전파 가정과 남성중심적 편견," 한국경제여성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1997.
10. 진위평, 『일곱주제로 만나는 동서 비교철학』, (한국어 역:고재욱, 김철운, 유성선), 예문서원,

27) 율려(律呂)란 『천자문』 도입부에 있는 율려조양(律呂調陽)을 출전으로 하는 말로 율려는 우주를 관장하는 중심음을 뜻한다.

1999.

11. 차은영, "페미니즘적 시각이 경제학에 미친 영향, 한국경제학에 나타난 여성의 과소대표성," 『응용경제』, 제2권 제2호, 1999, pp. 3-28.
12. 차은영 · 홍태희, "가계분석의 연구동향과 Gender개념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응용경제』, 제3권 제1호, 2000, pp. 23-48.
13. Agarwal, Bina, "Bargaining and Gender Relation: Within And Beyond The Household," *Feminist Economics*, Vol. 3, No. 1, 1997, pp. 1-50.
14. Althusser, Louis, *Das Kapital lesen, Bd. I.* Hamburg 1972.
15. Barrett, Michéle (et al.), *Feminism and Class Politics*, (한국어 편역: 신현옥, 장미경, 정은주,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여성사, 1995).
16. Beblo, Miram and Birgit Soete, *Der Haushalt als Forschungsgegenstand der ökonomischen Theorie*, Berlin, 1997.
17. Becker, Gary S., "A Theory of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Vol. 75, 1965, pp. 493-517.
18. Becker, Gary S.,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a.
19. Becker, Gary S., "Altruism in the Family and Selfishness in the Market Place," *Economica*, Vol. 48, 1981b, pp. 1-15.
20. Becker-Schmidt, Regina, and Gudrun-Axeli Knapp (eds.), *Das Geschlechterverhaltnis als Gegenstand der Sozialwissenschaften*, Frankfurt/New York, 1995.
21. Beneria, Lourde, "Towards a Greater Integration of Gender in Economics," *World Development*, Vol. 23, No. 11, 1995, pp. 1839-1850.
22. Biesecker, Adelheid and Sabine Wolf, "Ökonommische und Geschlechterverhältnis; Stand der Diskussion und Theorieskizze,"in Priddat, Birger P. and Eberhard K. Seifert (ed.): *Neuorientierungen der ökonomischen Theorie. Zur moralischen, institutionellen und evolutorischen Dimension des Wirtschaftens*, Marburg, 1995, pp. 123-152.
23. Chiappori, Pierre-André, "Rational Household Labor Supply," *Econometrica*, Vol. 56, No. 1, 1988, pp. 63-89.
24. Dimand, Robert W., "The neglect of women's contributions to economics," in Dimand, Mary Ann, Dimand, Robert W., and Eveiyn L. Forget (eds.), *Women of Value*, Edward Elgar, 1995.
25. Eisenstein, Zillah, (ed.), *Capitalist patriarchy and the case for socialist feminism*, New York, 1979.
26. Engels, Friedrich,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HottingenZürich, 1884.
27. England, Paula, "A Feminist Critique of rational-Choice Theories: Implication for Socioiogy," *The American Sociologist*, 20(1), Spring, 1989, pp. 14-28.
28. Ferber, Marianne A. and Julie Nelson (ed.), *Beyond Economic Man: Feminist Theory and Econom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한국어 역: 김애실 외, 『남성들의 경제학을 넘어서 - 페미니스트이론과 경제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29. Folbre, Nancy, "Cleaning House. New Perspective on Household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22, 1986, pp. 5-40.
30. Folbre, Nancy, "Socialism, Feminist and Scientific," in Julie Nelson and Marianne Ferber (ed.), *Beyond Economic 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p. 94-110.
31. Folbre, Nancy (ed.), *The Economics of the Family*, Edward Elgar Publishing Company, 1996.
32. Greenwood, Daphne,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Women's Place in Society: a New-Institutional View," *Journal of Economic Issues* 18, 1984, pp. 663-680.
33. Gordon, Wendell and John Adams, *Economics as Social Science: an Evolutionary Approach*, Riverdale, Md: The Riverdale Company, 1989.
34. Grapard, Ulla, "Feminist economics: let me count the ways," in Foldvary, Fred (ed.) *Beyond Neoclassical Economics*, Edward Elgar, 1996, pp. 100-114.
35. Gronau, Reuben,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 6, 1977, pp. 1099-1123.
36.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 II, Frankfurt/M, 1981.
37. Harding, Sandra, "The Instability of the Analytical Categories of feminist theory," in Sarding, Sandra and Jean O'Barr (eds.), *Sex and Scientific Inqui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p. 283-302.
38. Harding, Sandra,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Corell University Press, 1986 (한국어 역 이재경 · 박혜경, 『페미니즘과 과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39. Harding, Sandra,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Corell University Press, 1991.
40. Hartmann, Heidi,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towards a More Progressive Union," in Sargent, Lydia (ed.) *Women and Revolution*, 1981.
41. Hartmann, Heidi, et al.,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한국어 역 김혜경 · 김애령 역, 태암, 1989).
42. Hartmann, Heidi, "The Family as the Locus of Gender, Class, and Political Struggle," in Jane Humphries (ed.), *Gender and Economics*,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ritical Writings in Economics 45, Edward Elgar, 1995, pp. 179-207.
43. Hartsock, Nancy C. M., "Deveolping the ground for a specifically feminist historical materialism," in Harding, Sandra and Merrill B. Hintikka (eds.), *Discovering reality*, Dordrecht, 1983, pp. 283-305.
44. Haug, Frigga, "Zur Theorie der Geschlechterverhaltnisse," *Das Argument*, 3. 2002.
45. Hewitson, Gillian J., *Feminist Economics*, Edward Elgar, 1999.
46. Hodgson, Geoffery M., "Institutional Economics: Surveying the 'old' and the new," *Metroeconomica*, Vol. 44, No. 1, 1993, pp. 1-28.
47. Hodgson, Geoffery M. (ed.), *The Economics of Institutions*, Edward Edgar, 1994.
48. Hong, Tae-Hee, "Unsichtbare Frauenarbeit," *frauen solidarität*, No. 82, 2002.

49. Hooks, Bell, *Feminism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 South End Press, 2000(한국어 역, 박정애,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글사랑, 2002).

50. Humphries, Jane(ed.), *Gender and Economics*,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ritical Writings in Economics 45, Edward Elgar, 1995.

51. Humphries, Jane and Jill Rubery, "Zur Angebotsseite des Arbeitsmarktes. Die relative Autoeconomie der sozialen Reproduktion," in Regenhard, Ulla, Maier, Friederike and Andrea H. Carl(eds.), *Ökonomische Theorien und Geschlechterverhältnis. Der männliche Blick der Wirtschaftswissenschaft*, Fachhochschule für Wirtschaft, Berlin, 1994, pp. 67-91.

52. Jacobsen, Joyce P., *The Economic of Gender*, 2ed., Cambridge, MA: Blackwell, 1998.

53. Jennings, Ann L.,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al Economics and Feminism," in Nelson, Julie A. and Marianne Ferber(ed.), *Beyond Economic 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p. 111-130.

54. Kabeer, Naila, *Reversed Realities. Gender Hierarchies and Development Thoughts*, London, New York, 1994.

55. Kourany, Janet A., Sterba, James P. and Rosemarie Tong(eds.), *Feminist Philosophies*, Prentice Hall, 1992.

56. Maier, Friederike, "Homo Oeconomikus-Zur geschlechtsspezifischen Konstruktion der Wirtschaftwissenschaften," *PROKLA*, Vol. 23, No. 4, 1993, pp. 551-571.

57. Mansbridge, Jane J.(ed.), *Beyond Self-Intere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58. McDonough, Roisin, and Rachel Harrison, "Patriarchy and relations of production," in Kuhn, A. and A. Wolpe, *Feminism and Materialism. Women and Modes of Production*, London, 1978.

59. Mahowald, Mary Brod(ed.), *Philosophy of Women*, Hackett Publishing Co., 1994.

60. Manser, Marilyn and Murray Brown, "Marriage and Household Decision Making: A Bargaining Analysi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1, No. 1, 1980, pp. 31-44.

61. Maynard, Mary, "Race Gender and the Concept of Difference in Feminist Thought," in Afshar, Haleh and Mary Maynard(eds.), *The Dynamics of race and gender*, Taylor & Francis, 1994, pp. 9-25.

62. McElroy, Marjorie B. and Mary Jean Horney, "Nash-bargained Household Decisions: Toward a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of the Demand,"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2, No. 2, 1981, pp. 333-349.

63. Mitchell, Juliett, *Psychoanalysis and Feminism*, New York, 1974.

64. Nelson, Julie A., "Gender Metaphor and the Definition of Economics", *Economics and Philosophy*, Vol. 8, No. 1, 1992, pp. 103-125.

65. Nelson, Julie A., "Feminism and Economic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 1995, pp. 131-148.

66. Ott, Notburga, *Intrafamily Bargaining and Household Decisions*, Berlin, Heidelberg, New York, 1992.

67. Ott, Notburga, "Die Rationalität innerfamilialer Entscheidungen als Beitrag zur Diskriminierung weiblicher Arbeit," in Grötzinger, Gerd, Schubert, Renate and Jürgen Backhaus(eds.), *Jenseits von Diskriminierung. Zu den institutionellen Bedingungen weiblicher Arbeit in Beruf und Familie*, Marburg, 1993, pp. 113-146.

68. Petersen, Janice and Doug Brown(eds.),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Under Capitalism: Institutional Economics and Feminist Theory*, Aldershot, UK and Brookfield, Vermont: Edward Elgar, 1994.

69. Pollak, Robert A., "A Transactions Cost Approach to Families and Households," in Jane Humphries(ed.), *Gender and Economics*, Edward Elgar, 1985, pp. 138-152.

70. Sargent, Lydia(ed.) *Women and Revolution: A Discussion of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Boston, South End Press, 1981.

71. Seccombe, Wally, "The Hoesewife and Her Labour Under Capitalism," *New Left* 83(Jan-Feb.), 1973, pp. 3-24.

72. Scott, Joan W. and Louise A. Tilly, "Women's Work and the Familiy in nineteenth-century Europ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January 1975, pp. 36-64.

73. Seiz, Janet A., "Bargaining Models, Feminism, and Institutionalism,"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21, No. 2, 1995, pp. 609-619.

74. Sen, Amartya, *Resources, Values and Development*, Cambri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75. Sen, Amartya, "Gender and Cooperative Conflicts," in Irene Thinker(ed.), *Persistent Inequalities - Women and Development*, Oxford, 1990a, pp. 195-223.

76. Sen, Amartya, "Cooperation, Inequality, and the Family," in Nancy Folbre(ed.), *The Economics of the Family*,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ritical Writings in Economics 64, Cheltenham, Brookfield, 1990b.

77. Siebinger, Londa, "The Exclusion of Women and the Structure of Knowledge," in *The Mind has no sex?*,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p. 265-277.

78. Tuttle, Lisa, *Encyclopedia of Feminism*, New York, NY: Facts on File Publications, 1986.

79. Stanley, Liz and Sue Wise, "Feminism and the Social Science," *Breaking Out: Feminism Consciousness and Feminist Research*, Routledge & Kegan Paul, 1983, pp. 12-32.

80. Wolf, Sabine, *Ökonomie und "Geschlechtervehältnis," Zu den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Einbindung des Geschlechterverhältnisesin the die ökonomische Theorie*, Pfaffenweiler, 1996.

81. Woolley, Frances R., "The Feminist Challenge to Neoclassical Economics," *Th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3, pp. 485-500.

82. Young, Iris, "Socialist Feminism and the Limits of Dual Systems Theory," *Socialist Review*, 10, nos. 2-3, 1980.

83. Zilsel, Edgar(ed), *Die sozialen Ursprünge der neuzeitlichen Wissen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6.

Economics and Gender: A Critical Study of Modern Economics for the Foundation of Gender Economics

Hong, Tae-Hee*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economics in the view of the 'gender-aware'. We try for the first to find out the character of modern economics and the tendency of 'gender-blindness' in modern economics. And then we will try to discover the relation of gender to neoclassical economics, institutional economics, and marxian economics, and to show the limit and the possibility of the consolidation of gender economics in the various economic theories. Finally this paper aims to bring the reinterpretation of economics in the view of the gender-aware and to suggest the efforts for the consolidation of gender economics.

key Words: gender economics, gender-relations, gender

* Lecture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shin Women's University